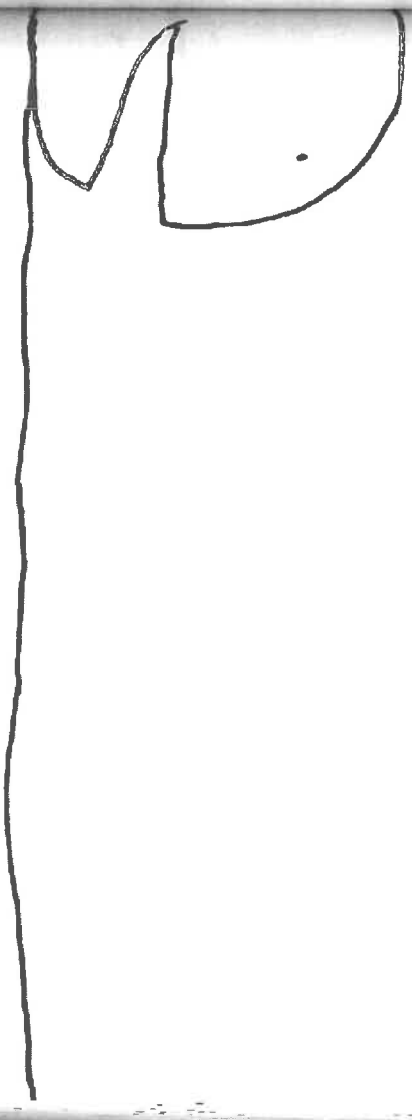


어디로 갔을까 나의 한쪽



서로 어울리는 이들에게 그리고,
서로 어울리지 않는 이들에게 이 책을,

한 조각을 잃어버린
슬픔에 찬 동그라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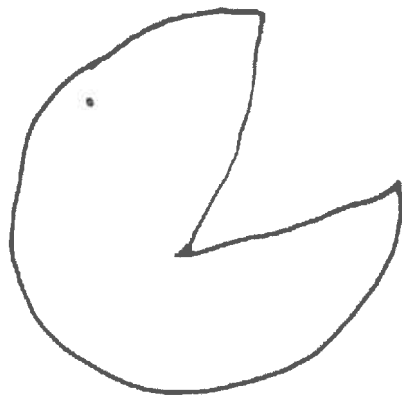




잃어버린 조각 찾아
길을 떠나네.

구르면서 부르는 노래 —

“어디로 갔을까 잃어버린 나의 한쪽
어디로 갔을까 잃어버린 나의 한쪽
하—야—호, 나 여기 가네,
잃어버린 조각 찾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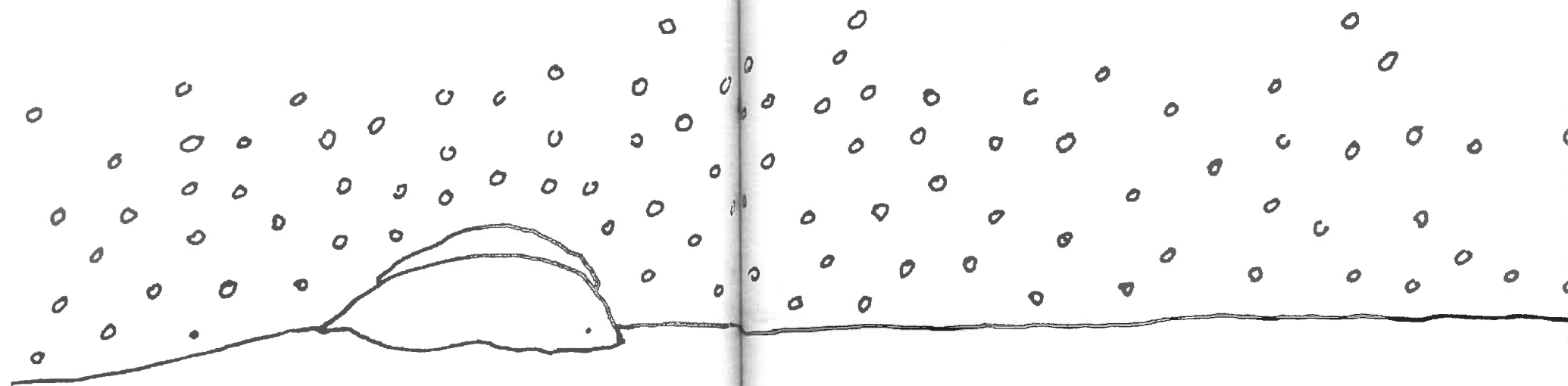
어떤 날은 뜨거운 햇볕 아래 헉헉대다가



시원한 소낙비로 힘을 얻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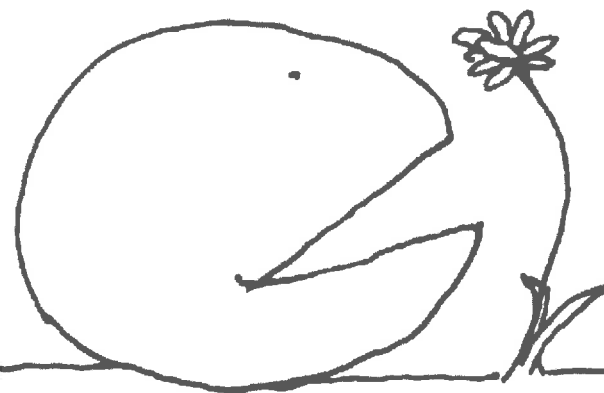
어떤 날은 눈 속에서 퐁퐁 얼었다가
따뜻한 햇살로 몸을 녹이네.



한 조각을 잃어버려 이가 빠진 동그라미
뒤뚱뒤뚱 구르다가
벌레를 만나면
잠시 멈추어 이야기하고



꽃 향기도 맡고





어떤 때는 딱정벌레를 앞지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딱정벌레가 앞지르기도 하고

나비를 친구 삼아 행복한 나날이었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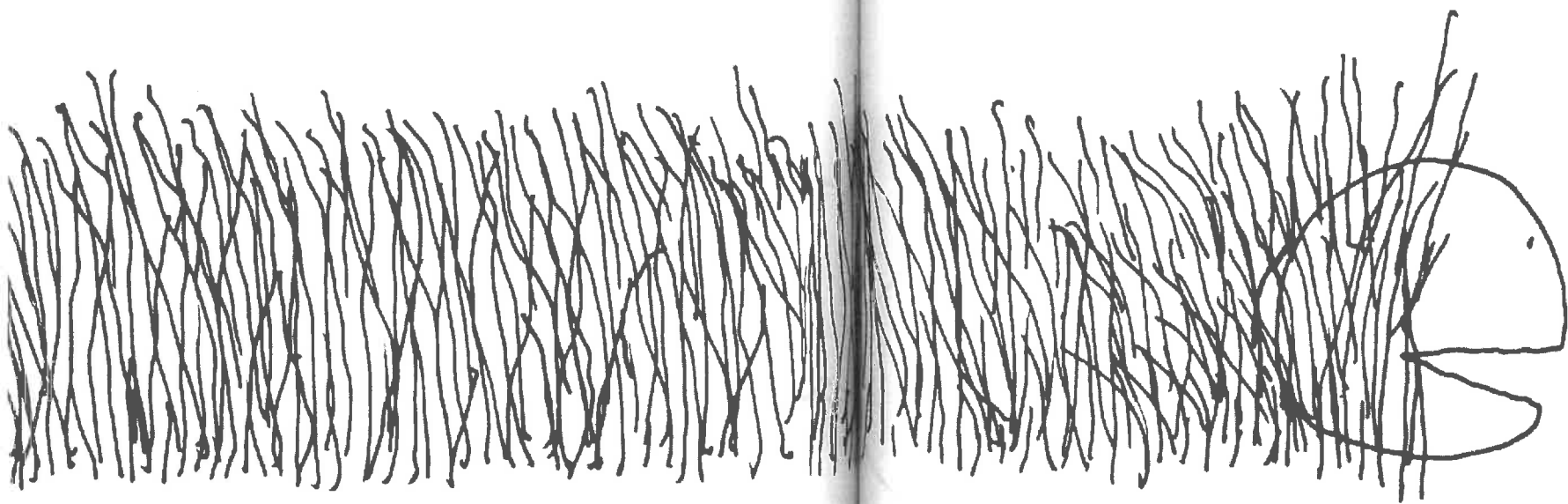


두둥실
바다도 건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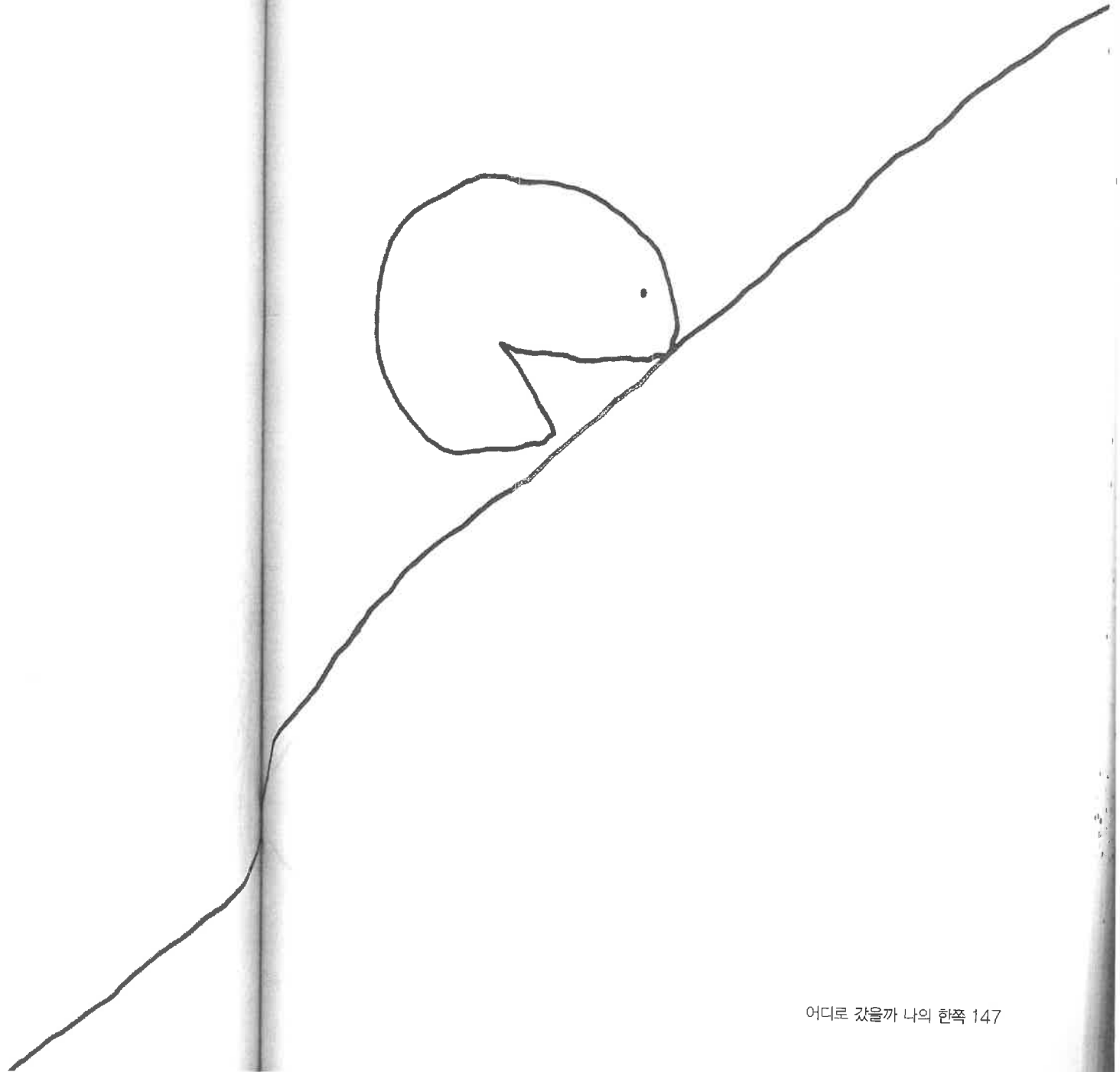
“어디로 갔을까 잃어버린 나의 한쪽
들판을 지나서 바다를 건너서
에이야 디야 에이야 디야
잃어버린 조각 찾아 가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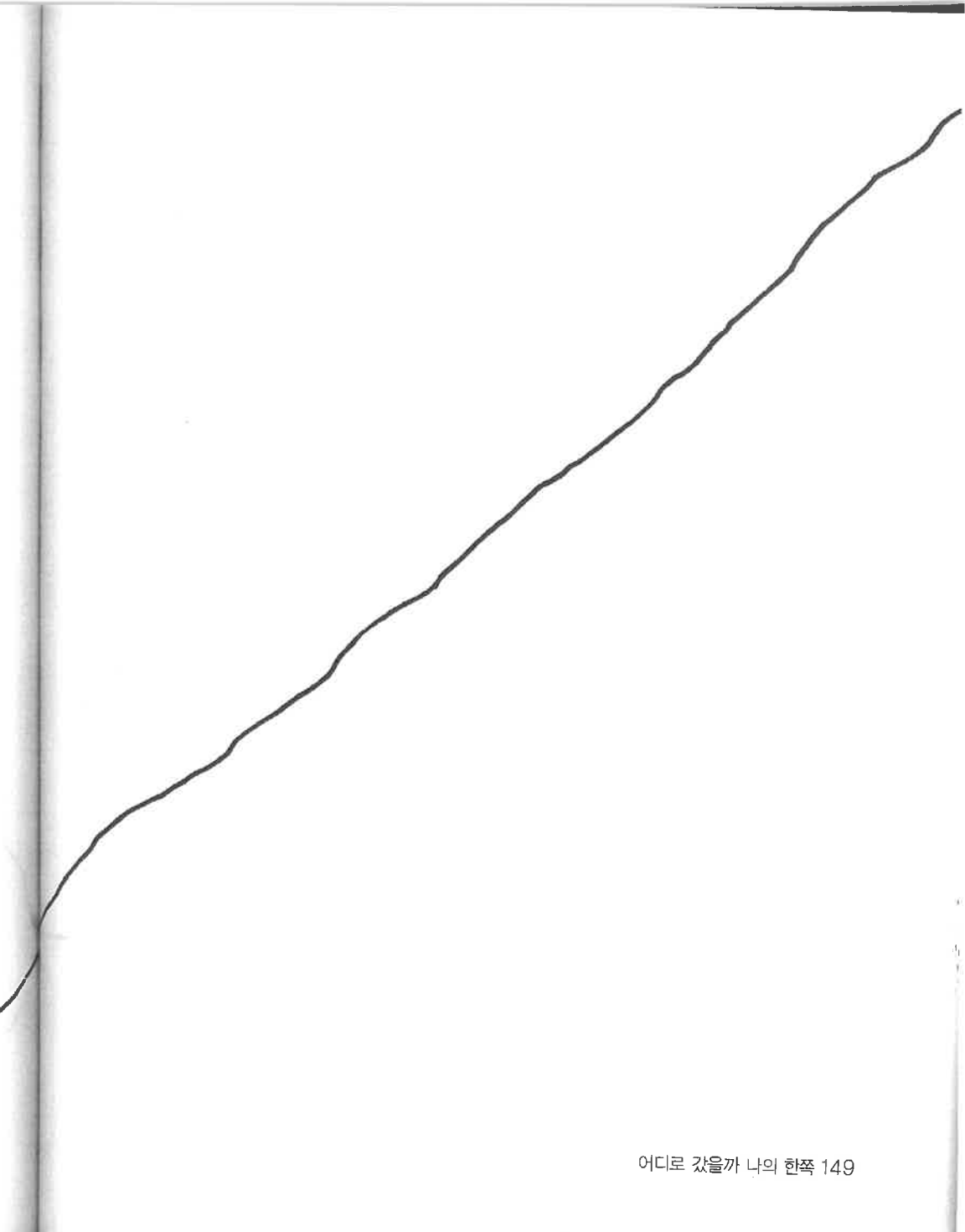
무성한 갈대 숲을 헤치고 밀림을 지나



깡깡대며 산길을 오르다가



데굴데굴 굴러 떨어지고



어느 날 드디어 찾았네!

이가 빠진 동그라미 신이 나서 부르는 노래 —

“마침내 찾았네 찾았어,

잃어버린 나의 한쪽

에이야 디야 에이야 디야

찾았네 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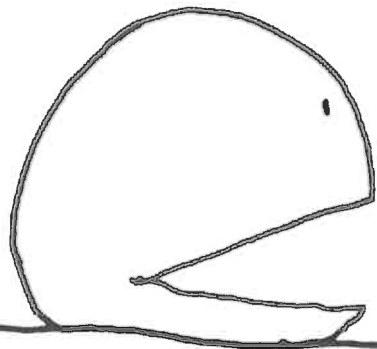
그 조각이 말하네.

“잠깐 기다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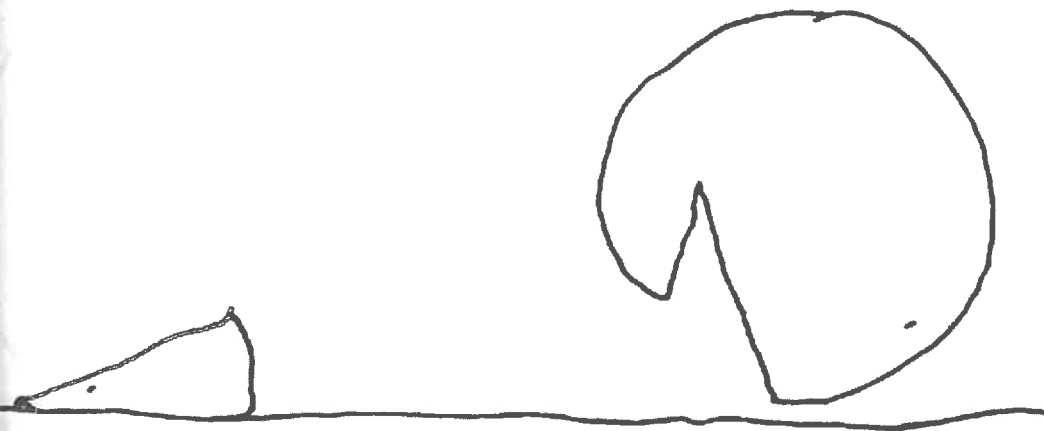
좋아하기 전에 내 말을 들어보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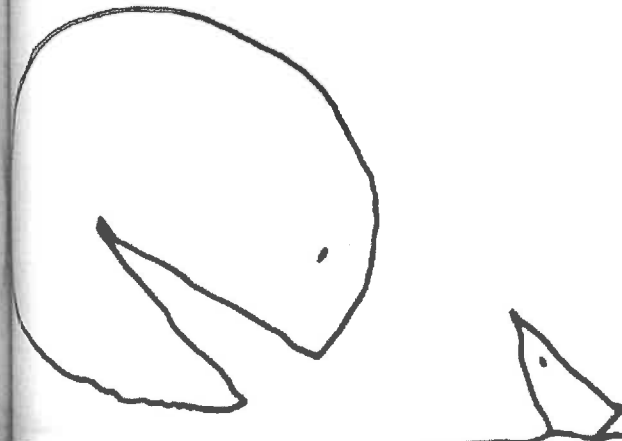
“난 너의 잃어버린 조각이 아니란다.
난 누구의 부분도 아니고
난 그냥 하나의 조각일 뿐이라구.
만약 누군가의 잃어버린 조각이라 해도
너의 조각은 아니란다!”



“아, 귀찮게 해 미안합니다.”
슬픔에 젖은 이가 빠진 동그라미
데굴데굴 다시 길을 떠나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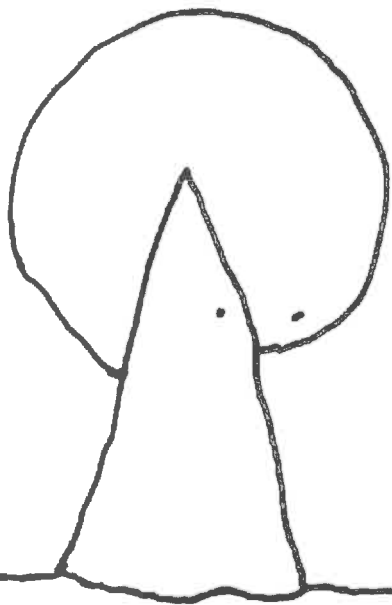


다른 조각을 만났으나



너무 작아 헐렁헐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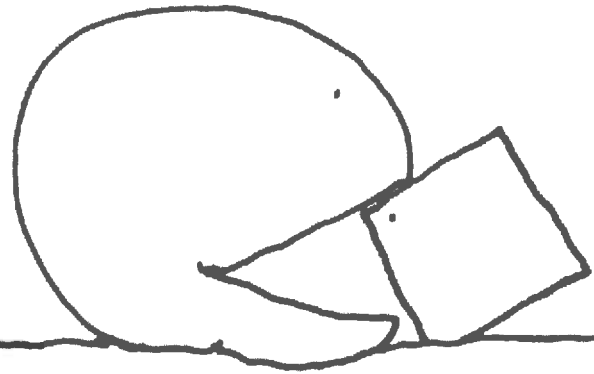


또 다른 조각은 너무 크고

또 다른 조각은 너무 날카로워 맞지 않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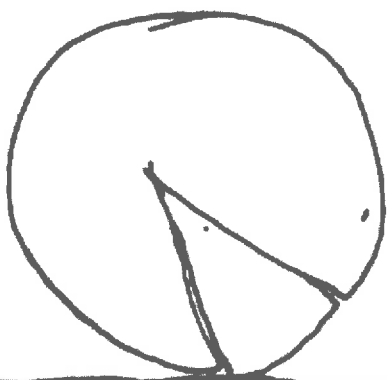


어떤 조각은 각이 저 맞지 않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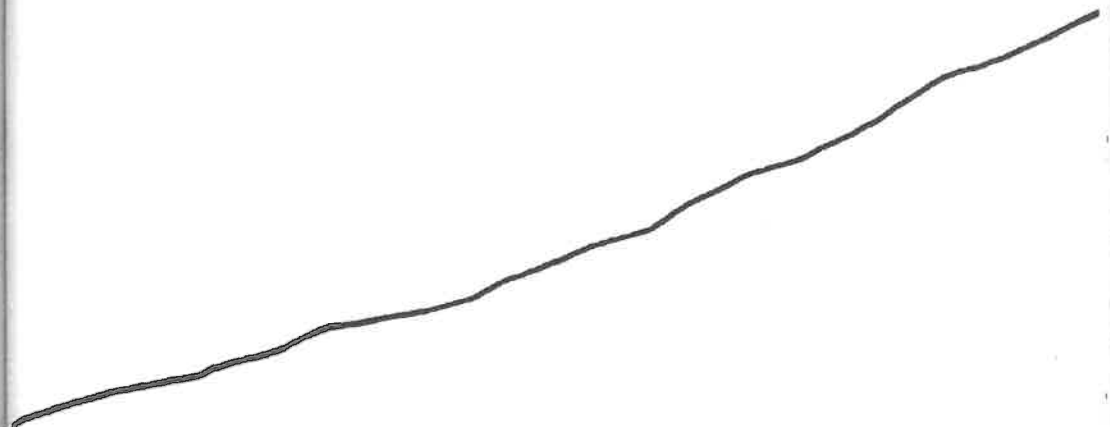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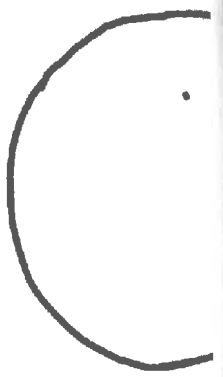


그리다가 한 번은
맞는 조각을
찾은 줄 알았는데

꼭 맞는 것이 아니어서



굴러가다 가다 잃어버렸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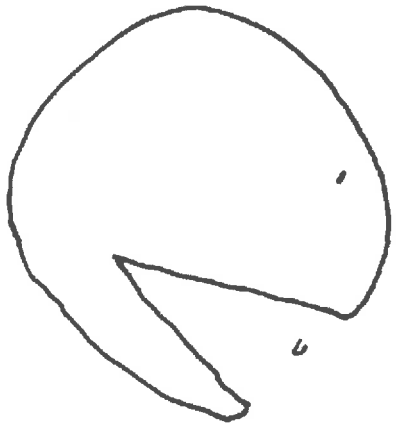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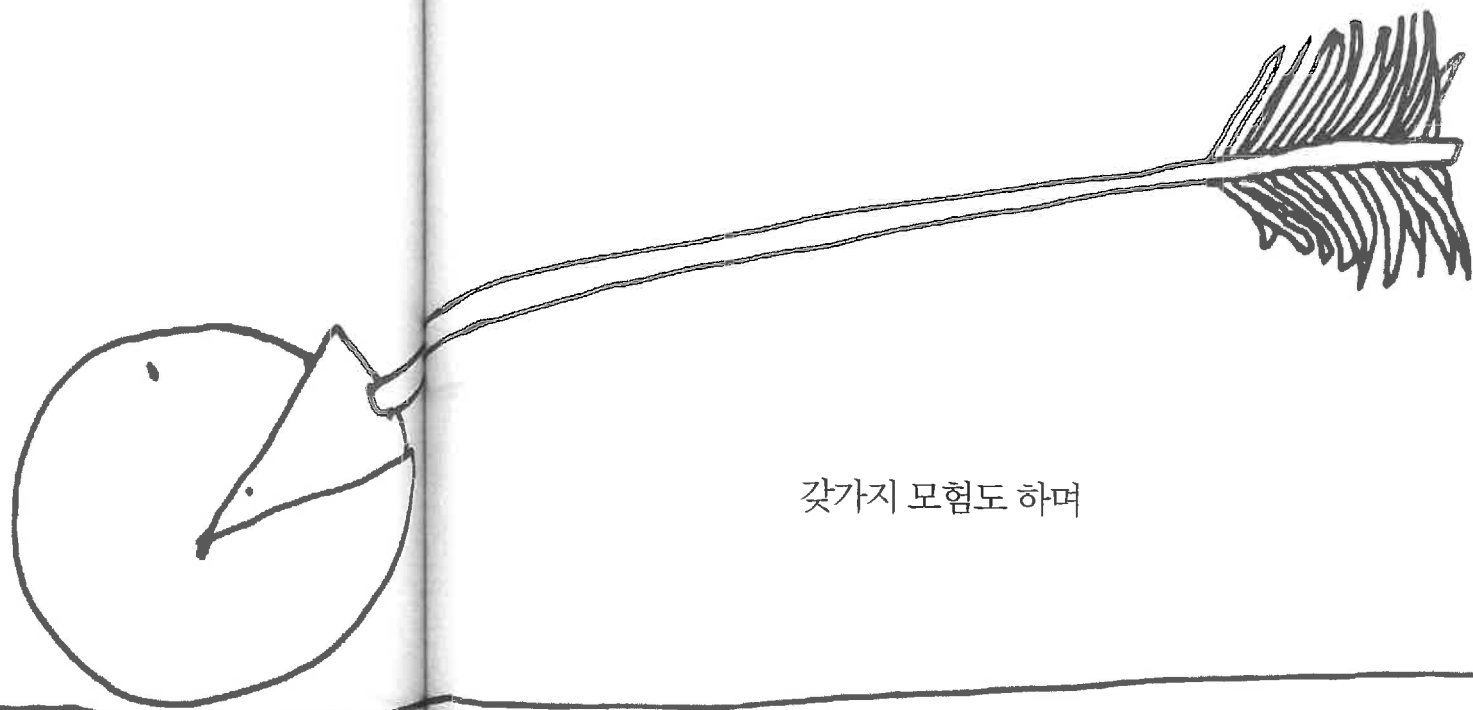
어떤 때는
너무 꼭 끼어



구르다 구르다 부서져 버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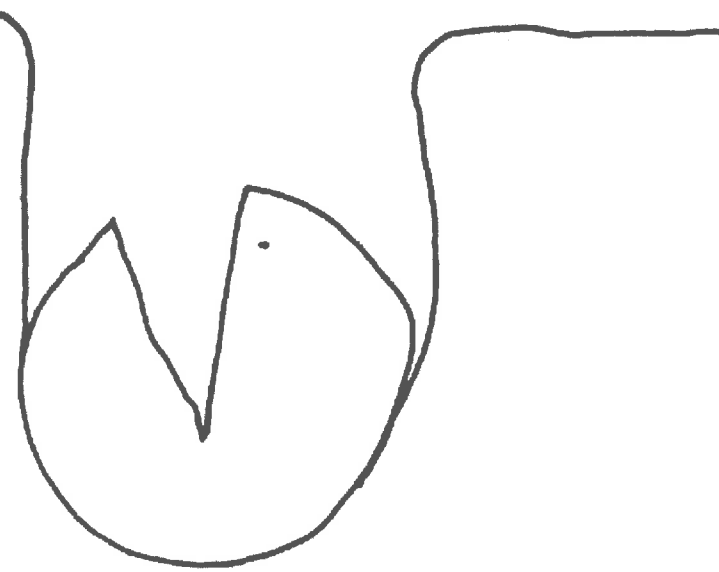
그래도
이가 빠진 동그라미, 데굴데굴 계속 굴러갔지.





갖가지 모험도 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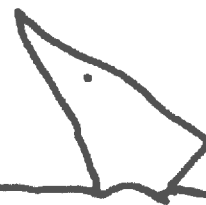
웅덩이에 빠져 허우적대기도 하고





돌무더기에 부딪쳐 코도 깨지고

그러던 어느 날
꼭 맞을 듯한
또 다른 조각을 만났네.



“안녕” 이 빠진 동그라미가 말하자

“안녕”하고 그 조각이 대답했지.

“넌 누구에게서 떨어진 조각이니?”

“글세, 잘 모르겠는 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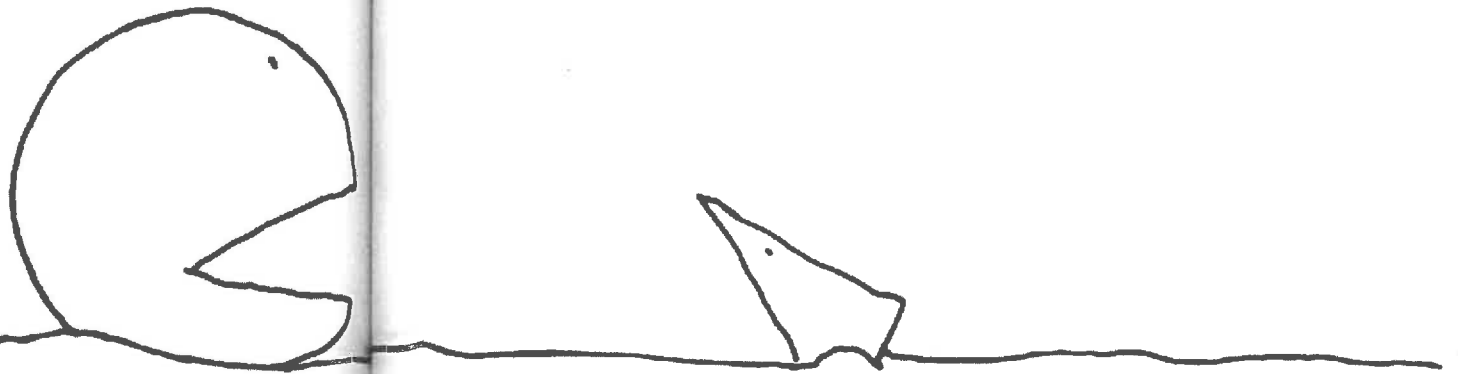
“그러면 너는 그대로 하나의 조각이고 싶니?”

“어느 누구의 조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너는 나의 일부가 되길 원하지 않겠지?”

“꼭 그렇지는 않아.”

“하지만 우린 아마 맞지 않을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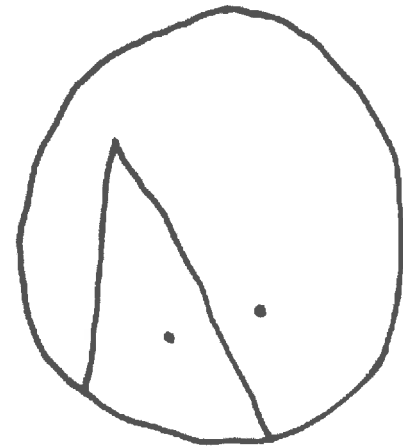
“글세…… “



”어때 맞는 것 같애?”
“아주 꼭 맞는데!”



맞았어!
아주 꼭 맞았어!
마침내 짝을 찾았네.



짜을 찻은 동그라미, 다시 길을 떠나네.

짜을 찻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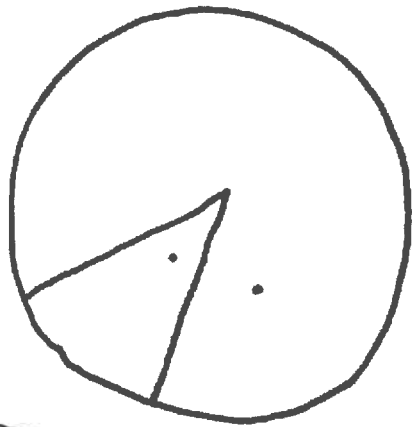
둥글둥글 동그라미

데굴데굴

옛날보다 훨씬 더

빠르게 빠르게

굴러가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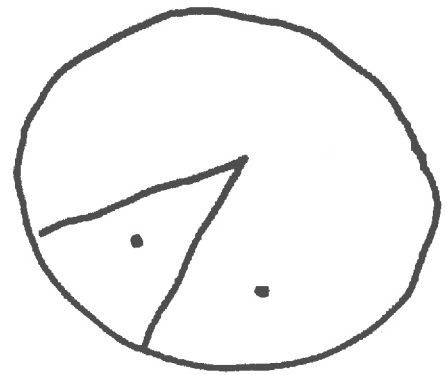


너무 빨리 굴러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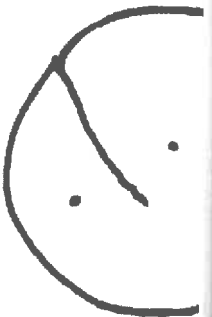
멈출 수 없어 벌레를 만나도

얘기를 못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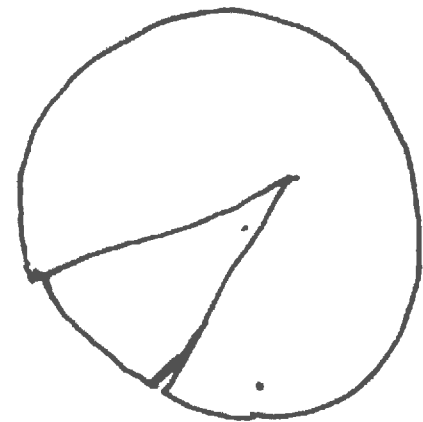
꽃을 만나도 향기를 느낄 수 없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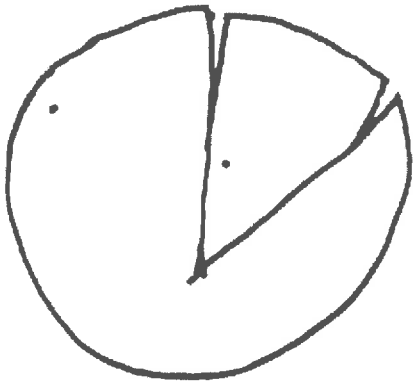
너무 빨라
나비가 앉을 수도 없네.



그러나 즐거운 노래는 부를 수 있을 것 같아
“난 찾았네 잃어버린 나의 한쪽“ 하며
노래를 시작했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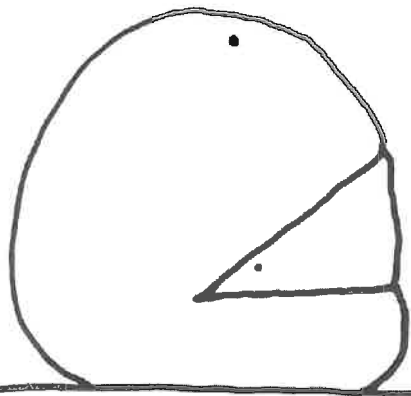


“나느 차아네 일으브린 니으 하즉
마치내 차아네
어이이 디이 어이이 디이
마치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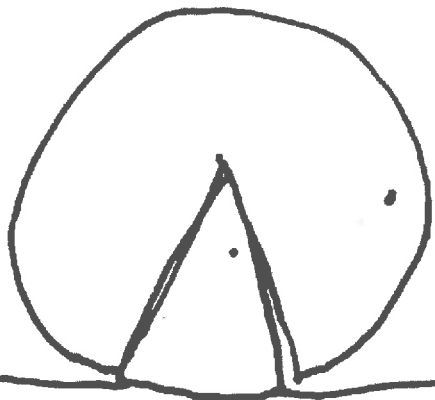
아아, 이럴 수가!
동그라미는 입이 막혀
이제 노래를 할 수 없네.

“으음” 동그라미는 생각했네.
“결국 이런 것이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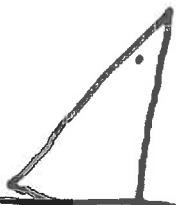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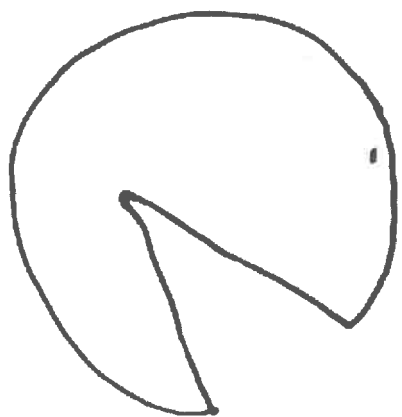
동그라미는 굴러가던 것을 멈추고

찾았던 조각을 살며시 내려 놓았지.



다시 이가 빠진 동그라미
천천히 길을 떠나네.





이가 빠진 동그라미 굴러가며
즐거운 노래 부르네.



“어디로 갔을까 잃어버린 나의 한쪽
어디로 갔을까 잃어버린 나의 한쪽
하—야—호, 나 여기 가네
잃어버린 조각 찾아”

